

beyond

The In-flight Entertainment Magazine of **KOREAN AIR**

May 2014 Vol.92



책 속에서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무료 쿠폰 이벤트를
찾아보세요



Dali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
Salvador Dalí, Surrealist Painter

BEYOND DISCOVERY

낯선 세상, 그 발견의 기쁨

낯선 세상은 기쁨입니다. 미지의 영역은 즐거움입니다. 호기심은 설렘니다. 체험은 짜릿합니다.
(비온드)가 소개하는 색다른 세상, 그 너머로 성큼 들어오십시오.

The Joy of Discovery

Learning about an unfamiliar world can be exhilarating. The exploration of the unknown and the desire to seek out new experiences, places and cultures, occupy the heart of travel. So come and explore the magical world that *beyond* introduces. Enjoy the journey!

베르사유 워터 씨어터 그로브에 설치된 장미셸 오토니엘의 조각품
Jean-Michel Othoniel's fountain sculpture for the Water Theatre Grove in Versailles

© Chateau de Versailles, Thomas Gammor
© Chateau de Versailles, Thomas Gammor



Mirrored glass, stainless steel, 210 x 180 x 125 cm / 82 3/4 x 70 3/4 x 49 1/4 © Otho Herovadio

장미셸 오토니엘의 아름다운 것들

OTHONIEL'S BEAUTIFUL THINGS

이 아티스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자유롭게 재료를 변형하고 조합하며, 자유롭게 예술을 정의하고 창조하는 것.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The ultimate objective of Jean-Michel Othoniel is to be free—to freely transform and mix materials, to freely define and create art, and to make the world beautiful that way.

by 김민정 Kim Min-jung



아름다움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단순히 보기에 좋으면 감탄을 자아내지만, 알맹이까지 갖췄다면 감동을 준다. 장미셸 오토니엘 작품이 지닌 아름다움은 후자에 속한다. 처음 그의 작품을 봤을 땐 형형색색 유리가 발하는 빛에 눈이 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지는 것은 투명한 유리에 투영되는 마음,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상상들이다. 그 느낌들은 뭐라 정확히 형언할 순 없지만 '감동'이라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1988년 파리 세르지퐁투아즈의 예술학교를 졸업한 장미셸 오토니엘은 유리뿐 아니라 유황, 인, 왁스, 고무 등 독특한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추상적이고 시적인 그의 작품은 구구절절 많은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는다. 곧 깨져버릴 환상이라도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보여줄 뿐이다. 물론 이게 전

1 르 노즈 미로르, 2014 2 파리 스튜디오에서 장미셸 오토니엘
1 Le Noeud rose miroir, 2014 2 Jean-Michel Othoniel in his studio in Paris

There are many different faces of beauty. Something may catch your attention at first, but if it lacks substance, it won't touch you on a deeper level. Jean-Michel Othoniel's works have plenty of substance to their beauty. At first glance, you may be blinded by the sheer colorfulness of his glass sculptures. Eventually, you will sense different emotions and images reflected on the surface. It's difficult to pinpoint a sensation, or to articulate the depth of your reactions to Othoniel's work. The artist, who graduated from the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ts de Paris-Cergy in Paris, has produced a wide range of pieces using a diverse range of malleable materials as glass, sulfur, phosphorus, wax and rubber. His

부는 아니다. 그의 대표작 <상처 목걸이>(1997)는 언뜻 보기엔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목걸이를 이루는 각각의 구슬에는 상흔이 남아 있다.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상처와 아픔도 포함될 수 있으며 예술가들은 그마저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야 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2011년, 대규모 회고전을 열며 서울을 방문한 오토니엘은 예술가로서 세상에 마법을 걸고 싶다는 바람을 말했다. 비극적인 순간에도 자신만의 통찰력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본질적인 것들의 경이로움, 감정의 진실함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싶다는 게 그 요지였다. 홍콩의 갤러리 페로탱에서 전시를 앞두고 있는 지금도 그는 여전히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데 몰두해 있다. 단순히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을 넘어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일종의 사명감을 느끼며 말이다. 오토니엘은 자신의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희망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행복하다고, 지금 이 끔찍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움이라는 도피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5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홍콩 갤러리 페로탱에서 열리는 <모뉴멘탈 스킵처>전에서 그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다. ■

김민정은 <비욘드>의 에디터다.

abstract and poetic works don't try to overwhelm you with narrative. They merely show you how beauty can be so precious in and of itself, even if it is just a fleeting fantasy. That's not all, of course. *Scar-Necklace* (1997), one of his signature pieces, may seem beautiful at first, but each bead of the necklace contains scars. With elements that make up the world including pain and its scars, Othoniel tells us that artists must sublimate them into beauty.

In 2011, Othoniel visited Seoul for a retrospective, and he shared his wish to put a spell on the world. With his own insight, he hoped to discover the beauty of nature and extract the essential honesty of emotions, even in tragic moments. For the upcoming May exhibition at Galerie Perrotin in Hong Kong, Othoniel remains committed to creating beauty—not simply for personal interest, but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thoniel said he'd be happy as long as people have "a feeling of elevation of their soul" when they view his works. He said that in the difficult world we live in, we all need beauty as a refuge. Witness such beauty for yourself at his *Monumental Sculptures* exhibition at Galerie Perrotin in Hong Kong from May 13 to June 21. ■

Kim Min-jung is an editor for *beyond*.

INTERVIEW

유리를 비롯해 변형과 변성이 가능한 재료를 선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1989년 즈음의 일이다. 당시 나는 유황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화산에서 채취되는 자연황을 직접 보기 위해 나폴리의 리파리 화산군도를 방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화산활동으로 생성되는, 천연 유리의 일종인 순 흑요석을 발견하게 되었다. 짙은 색깔의 이 아름다운 암석은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부석을 완전히 녹이면 생성되는 것이다. 서로 다른 형태와 특성을 가진 광물이 함께 섞여 있다는 점, 또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Do you have any specific reasons for why you prefer to work with transformable and reversible materials, such as glass? I started working with glass in the late 1980s. Back in those days, I was working with sulfur. In 1989, I decided to go to Naples to see native sulfur coming out of the volcano. I discovered there the pure black obsidian of Lipari, the glass of volcanoes, which disappeared some 13 centuries ago. What struck me was that this beautiful dark and opaque stone and the white, immaculate pumice stone come from the same single basalt. It was as though each of these two materials both contained and was the inverse of the other.

당신의 작품은 아름답지만 내포한 의미는 고통과 비극, 슬픔까지 광범위하다.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예술 작품의 창조를 통해 늘 시각 외 다양한 다른 감각들을 일깨우고자 노력했다. 혀로 감촉을 느껴보고 싶거나 유리를 튕길 때 나는 소리를 듣고 싶다는 열망이 그 예가 될 수 있겠다. 유리는 액체가 동결된 상태와 같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각적이고 매끄러우며 때로는 색사하기까지 한 이 유리가 격렬한 창조 과정에서 생성된 것임을 잘 알지 못한다.

유리는 제조공이 작업을 하는 동안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혼합과 분쇄, 세공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루던 흔적이 남기 때문이다. 유리 공장의 감독들 역시 소재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재료가 융합되는 동안 흠집이 생기면 어떻게든 가려보려 하지만 계속해서 표면에 남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러한 현상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제조공에게 일부러 융합 과정에서 불규칙적인 흠집이 형성되도록 주문해 작품에 활용하기로 했다. 감각적인 동시에 폭력적인 면을 가진 유리는 모든 것을 일체화시키는 테크닉으로 상처를 승화시킨다. 나는 그 흠집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Your pieces seem beautiful at first sight, but they contain many different emotions, such as pain, tragedy and sorrow. What do you ultimately try to tell your audience? I have always been interested in creating artworks that stimulate senses other than sight: the desire to lick, for example, or the sound of the tinkling glass. Glass is like a frozen liquid. But what people don't realize upon first glance is that the beguiling, sensual—even smooth and sexual aspect of glass sometimes—is through the solar side of a violent creative process. The glass is wounded when the glassmaker is working on it. Blown glass holds traces of the glassmaker's body. It is mixed, pulverized and handled by him. The gaffer explained that the most difficult thing was to leave no trace in the material: if the ball of glass is wounded during the fusion, this wound will forever resurface. I liked this idea a lot: that, despite every effort to smooth it over, the wound would always reapp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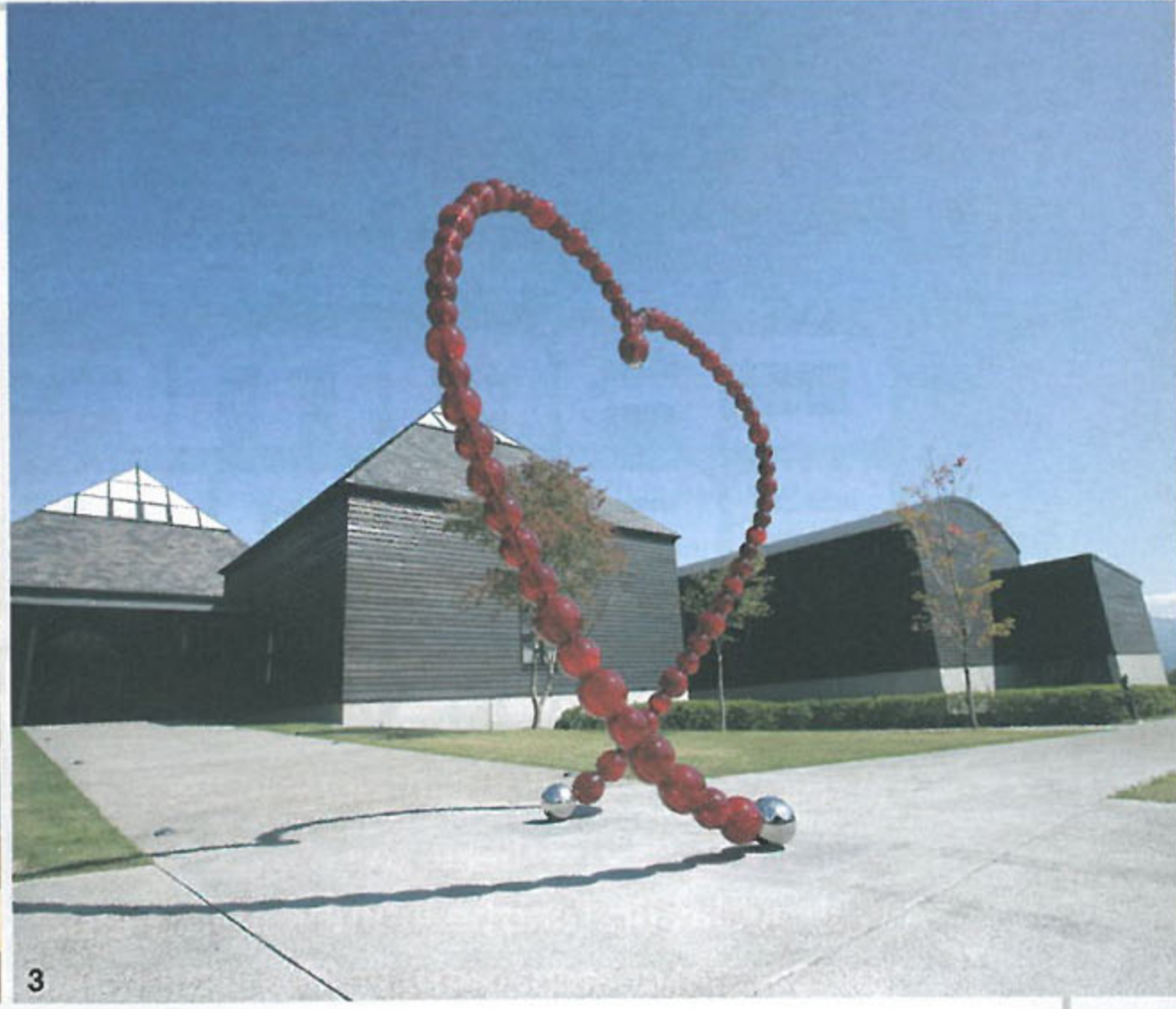
1 2009년 갤러리 페로탱 파리에서의 전시

2 더 네크레이스 트리, 2003

1 View of the exhibition in 2009 at Galerie Emmanuel Perrotin

2 The Necklace tree, 2003





I thus chose to work with such accidents, asking the glassmaker to wound the glass while in fusion, leading to irregular, marked forms, bearing scars. And I see true beauty in these scars. I am very interested in this technique that unifies everything, this material that sublimates wounds and is both sensual and violent.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해 파리의 지하철역, 샤를레 극장 등 미술관이 아닌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전시를 열었다. 특정 장소를 위한 작품 의뢰에 늘 열정적으로 임한다. 2000년, 처음으로 파리 루아얌 광장-루브르 박물관 지하철역 입구에 <르 키오스크 드 녹탕빌>(2000)를 설치하여 이 공간을 완전히 변모시켰다. 2009년에는 일본 군마현 하라 현대미술관의 초청을 받아 미술관 입구에 놓을 <코코로>(2009)라는 조각품을 작업했으며, 2013년에는 도쿄 모리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정원에 <킨 노 코코로>(2013)를 영구 설치하기도 했다. 일본에 있는 이 두 작품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Your works can be seen at the Louvre, at subway stations in Paris, and at the Théâtre du Châtelet, among other public places. Are you fond of any places in particular? I have always shown a strong passion towards commissioning for specific sites. In 2000, I responded for the first time to a commission for a public space and transformed the Paris subway entrance at the Palais Royal—Musée du Louvre Station, into *Le Kiosque des Noctambules* (2000). The Hara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Japan) invited me in 2009 to create a new sculpture in the Gunma Prefecture, *Kokoro* (2009), installed at the entrance of the museum. In 2013, the Mori Art Museum in Tokyo commissioned me for its 10th anniversary, *Kin no Kokoro* (2013), a permanent work in the Mori Garden. Those two pieces are my favorites.

미술은 다른 미술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특별히 영향을 받은 미술가나 좋아하는 작품이 있다면 무엇인가. 펠릭스 곤살레스토레스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았다. 1997년, 나는 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에이즈로 사망한 그를 추모하기 위한 프로젝트 작업에 참가했다. 일약 유명세를 탄 펠릭스의

발자취를 경험해 그와 더 깊은 친밀감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형식보다는 사상과 테마를 기반으로 한 친밀감이었다.

Has any artist or any artwork had a special influence on you? Félix González-Torres had a special influence on me. Meeting Félix González-Torres, whose rise had been nothing short of meteoric, resulted in a deep affinity based less on form than on mentality and theme.

당신의 작품을 보고 관람객들이 무엇을 느끼면 좋을까. 내가 작업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듯이, 관람객들도 마음을 열고 자신의 감정에 당당했으면 한다. 같은 작품에 대해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중국에는 자신의 영혼이 한 단계 고양되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시아에서 아름다움과 명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나의 작품도 정신적이면서 동시에 감각적이다.

What would you like your audience to feel when they see your work? I have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my work in various different ways as I am creating it; as a viewer, you just have to open your heart and be confident in your feelings. The same piece can be read in various different ways but ultimately, I would love the people to have a feeling of elevation of their soul. In Asia, contemplation and beauty are linked; my work is very spiritual and sensual at the same time.

새롭게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요즘 베르사유 궁전 프로젝트를 작업 중이다. 9월에는 궁전 정원의 워터 씨어터 그로브 연못에 3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진 분수조각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작업은 프랑스의 조경 디자이너 루이 베네슈와 함께 하는데 본래 태양왕 루이 14세를 위해 조성했던 숲을 재단장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300년 만에 처음으로 궁전 정원에 설치되는 영구 조각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Are you working on any new project at this moment? I am working on a new project for the Palace of Versailles. In September, I will create three groups of fountain sculptures for the ponds of the new Water Theatre Grove in the gardens. The French landscape designer Louis Benech invited me to install them in the new, refurbished

1 르 키오스크 드 녹탕빌, 파리, 2000 2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지오메트리 아무르즈>(2004) 3 코코로, 2009

1 *Le Kiosque des Noctambules*, Paris, 2000 2 *Géométrie amoureuse* (2004) at Musée du Louvre, Paris 3 *Kokoro*, 2009

grove originally created for Louis XIV. It will be the first permanent sculpture installation in the palace gardens in over three centuries.

홍콩의 갤러리 페로탱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 대해서도 소개해달라. 풍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새 작품들의 형상과 색감을 결정했다. 인간과 주변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는 이 철학은 나의 예술적 접근 방식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나는 언제나 작품을 통해 자연과 세계, 그리고 그 공간의 조우를 추구한다. 갤러리에 전시되어 회전하는 유리구슬과 유리 조각품들의 움직임은 내재된 아름다움과 변동성을 이끌어내며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조각품들의 추상적이고 미니멀한 특성 때문에 공간과의 대화는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Tell us more about your show at Galerie Perrotin HK in May 2014. I have collaborated with a Feng Shui Master to determine the forms and colors of my new sculptures. The idea of harmonizing human existence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conforms to my artistic approach, which constantly seeks to relate my work with regard to nature, as well as to the world and the space the sculptures inhabit. With the show at Galerie Perrotin, the rotation of the beads and the movement of these monumental glass forms in the gallery room will bring out the intrinsic beauty and variability of the knots I created. Due to the abstract and minimal quality of these particular sculptures, we will be confronted by a dialogue of visibility, of whether the space is adorned by the works or actually the works will be celebrated by the space.

예술가로서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 자유로워지는 것!

What is your ultimate goal as an artist? To be free!